

한·중 언어 대조를 위한 언어 개념 구축과 범주 한정

소효하* · 최순희**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한국 언어(collocation) 연구
- III. 중국어 '搭配' 연구
- IV. 한·중 언어 대조를 위한 언어 개념과 범주 한정
- V. 나오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언어'(collocation)와 중국어 '搭配'를 논의함으로써 한·중 언어 대조를 위한 언어 개념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한·중 언어 대조 연구가 활발해진 것에 비하면 한국어 언어에 상응하는 중국어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많이 부족하다. 영어 'collocation'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는 언어라고, 중국어에서는 '搭配'라고 한다. 본고는 한국어 언어와 중국어搭配上 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두 가지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搭配的 유형을 분석한 결과 特定搭配/有限組合/受限搭配/限制性搭配 등을 한국어 언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본고에서 주장하는 언어 판별 기준을 고려해 '特定搭配'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일차적으로 '의미 해석의 투명성'을, 이차적으로 '어휘 선택 제약'을 언어와 特定搭配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들의 범주를 규정하였다.

* 주저자: 강소해양대학교 부교수

** 교신저자: 북경언어대학교 교수

주제어 : 언어 대조, 개념 구축, 特定搭配, 범주 한정, 의미 투명성

I. 들어가며

본고는 한국어 '연어'(collocation)와 중국어 '搭配'를 논의함으로써 한·중 언어 대조를 위한 연어 개념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어휘적 접근법(Lexical Approach)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언어학계에서 연어(連語), 즉 collocation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제2외국어 교수 영역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언어의 언어적 습관에 맞는 유창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목표언어 연어를 모국어와 대조하는 논의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중 언어 대조의 경우 최순희(2005)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¹⁾.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응 유형을 고찰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연어 개념 규정에서 한국어 연어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중국어에 연어 개념이 있는가? 흔히 알려져 있는 '搭配' 혹은 '詞語搭配'라는 개념이 한국어 연어 개념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구성이 한국어 연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許余龍(2010:328-330)에 따르면 대조 연구의 경우 대조의 기초(tertium comparationis, TC), 즉 공통된 출발점(出發點) 혹은 참조는 대조 언어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고 어

1) 2021년 8월까지 '한·중 언어 대조', '한·중 언어 대응'을 검색어로 www.riss.kr에서 검색한 결과 학술 논문 4편, 학위 논문 17편이 나왔고 중국어 '連語', '韓·中搭配'를 검색어로 中國知網에서 검색한 결과 학술 논문 6편이 나왔다.

면 대조 연구를 하려면 우선 대조되는 참조점(參照點)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중 언어 대조를 하는 경우 우선 언어 개념을 정확히 규정한 후, 즉 일관된 기준으로 언어 개념을 규정한 다음에 대조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조의 기초에 신빙성이 없고 이로 인하여 대조 연구의 활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양에서는 1930년대에 collocation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었고 195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1980-90년대 이후 개념과 유형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어휘적 접근법(Lexical Approach)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collocation에 대한 언어학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비록 일찍부터 단어를 연결하거나 조합하여 구(phrase)를 구성한다는 주장은 엿볼 수 있지만, 서양의 언어 연구의 영향을 받아 대략 1980년대 후반, 1990년대에 이르러 언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고는 한국 및 중국에서 언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한·중 언어 대조를 위한 언어 개념을 구축하고자 한다.

II. 한국 언어(collocation) 연구

이언어라는 개념은 처음으로 Palmer(1933)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Palmer(1933)은 언어를 "구성 요소에서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 전체로서 학습해야 하는 두 개 이상의 단어 연속(Palmer 1933:i)"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Firth(1957)는 "You shall know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1957:179)라고 하면서 의미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 혹은 단어

와 문법 구조 간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²⁾

Firth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제자 Halliday와 Sinclair에 의하여 발전되었고 예를 들어 Halliday는 오늘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심어(node)', '범위(span)', '연어 구성 성분(collocate)' 등의 개념을 소개하였고(Barfield and Gyllstad, 2009:3-4; 김태은, 2015:292 재인용) Sinclair(1991:170)은 Halliday의 개념을 확대하였고 중심어 좌우로 각각 ± 4 에 이르는 범위를 중심어의 연어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최적 범위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사전학을 둘러싼 연어 연구의 '성구적(成句的) 접근(phraseological approach)'도 있다. 성구적 접근은 연어를 자유 결합과 관용 표현 중간에 위치하는 일종의 단어 연속체로 본다는 점에서 확률 기반 접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구적 접근의 대표로 먼저 러시아 학자 Vinogradov를 들 수 있다. 그는 단어 간의 자유로운 결합이 아닌 고정된 결합만 연구 대상으로 보아 이러한 결합을 '성구적 단위(phraseological unit)'로 칭하였다. 또 '성구적 단위'는 Vinogradov(1947)에 의하여 '성구적 융합(phraseological fusions)', '성구적 통일(phraseological unities)', '성구적 조합(phraseological combinations)'의 세 가지로 세분되었다(Howarth, 1996:22).

러시아의 성구론(phraseology) 연구는 영국 학자 Cowie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었다. Cowie(1994:3168)는 성구적 연구의 개념을 '단어 결합

2) Firth는 ass라는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Don't be such an ass!", "You silly ass.", "What an ass he is!"에서처럼 ass는 습관적으로 "you silly~", "he is a ~", "don't be such an ~"와 같은 통사적 구조와 공기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 단어들 간의 결합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They are milking the cows", "Cows give milk."에서 보이는 것처럼 milk와 cow는 항상 습관적으로 공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의 구조, 의미 및 사용에 대한 연구(the study of the structure, meaning and use of word combinations)'라고 규정하였다. 또 성구적 연구에 대한 유형 분류에서 Cowie(1994:3169)는 어휘 항목들의 결합을 '공식어(formulae)'와 '복합 구성(composites)'으로 구분하였고 전자는 "How are you", "Good morning"처럼 의사소통에서 많이 쓰이는 고정된 표현이며, 후자는 의미 투명성(transparency) 기준과 구성 요소의 교체 가능성(commutability)을 기준으로 다시 '자유 결합(free combinations)', '제한적 결합(restricted collocations)', '비유적인 관용 표현(figurative idioms)', '완전한 관용 표현(pure idioms)'으로 세분되었다.

서양에서 collocation에 관한 논의는 다른 언어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현재 여러 언어를 대상으로 한 언어 연구는 서양에서의 언어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언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이래 2000년대까지 이론언어학적 및 통계언어학적 차원에서 일련의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 외국어 교수에서 학습자 언어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언어에 관한 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육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언어 정보 구축에서 접근 방법이 다양하고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본고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³⁾ 그리고 결합 빈도를 중시한 정의는 광범위한 말뭉치를 바탕으로 통계학 수단으로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 상황을 나타내는 데 우세를 보이거나 인접성, 공기 확률과 같은 통계

3)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에서 언어 정보는 통계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출현하는 어휘 결합으로서 말뭉치 상에서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구를 대상으로 하나, 모어 화자가 특별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학습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언어나 글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유용한 어휘 결합들을 대상으로 구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 차원에서 언어를 정의하는 데 공기 빈도 및 외국어 학습 요인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 수치만으로 연어를 판정하는 데에 다소 무리가 있고 연어의 본질과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이론 언어학적 접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연어 개념에 관한 이론언어학적 논의로는 홍재성(1995), 이희자(1995), 박성숙(1997), 최경숙(1997), 강현화(1998), 이동혁(1998, 2004), 김진해(2000), 문금현(2002), 임홍빈(2002, 2006), 송정근(2002), 이호승(2003), 박진희(2005), 유승만(2006), 임유중(2006) 등을 들 수 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한국어 '연어' 개념

기존 연구	연어 개념	연어 유형
홍재성 (1995)	일반적으로 연어는 규칙적인 통사 관계에 의해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어휘적 차원에서 특별히 긴밀하고 제한적인 결합 관계를 보이는 다음의 예들과 같은 두 단어의 연쇄를 가리킨다.	
이희자 (1995)	관용어적 어절의 결합이 통사적 요인에 의한 것들로 선택 제약의 관계에 있는 말들	1) 의미적 연어-속을 끊이다 2) 통사적 연어-입을 다물다 3) 형태적 연어--나가 보다
강현화 (1997)	말뭉치에서 하나의 어휘항목은 다른 몇 개의 어휘항목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어휘 항목의 긴밀하고 고정적인 공기관계	1) a+B-전철을 밟다 2) a'+B-속이 보이다 3) A+b'-목이 잠기다 4) A+b'-사기를 치다 5) A+B-개가 쫓다 6) a+b-미역국을 먹다 7) a'+b'-속을 태우다
이동혁 (1998)	연어는 특수한 단어끼리의 관습적인 긴밀한 구 결합체이면서, 연어의 구성 단어 중 적어도 하나의 단어가 기본 의미가 아닌 비유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다	
김진해 (2000)	광의의 연어: 통사·의미론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어휘가 동일한 문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어휘들의 공기 관계	1) 전체적 연어 ① 용언에 의한 전체적 연어-입을 다물다

	<p>협어의 언어: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휘소들 간의 제한적 공기 관계</p>	<p>② 부사에 의한 전체적 언어-부르르 떨다 ③ 단위 명사에 의한 언어-개비: 담배 2) 관습적 언어 ① 체언에 의한 관습적 언어-전철을 밟다 ② [수식어+피수식어]형 관습적 언어-새까만 후배 ③ [체언-(의) 체언]형 관습적 언어-각고의 노력</p>
<p>임흥빈 (2002)</p>	<p>언어: 언어 관계에 있는 어휘소가 문법적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이룬 것. 언어 관계: 일정한 문법적 구성에 나타나는 두 어휘소 사이의 어휘적인 선택 관계</p>	<p>1) N_V-눈을 뜨다 2) N_A-쌈씨가 헤프다 3) ADV_V-까르르 웃다 4) ADV_A-지끈지끈 아프다 5) N의 N-각고의 노력</p>
<p>문금현 (2002)</p>	<p>언어는 둘 이상의 축자 의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결합 관계를 형성하는 어군으로 출현 빈도가 높고 심리적인 현저성이 높다.</p>	<p>1) 어휘적 언어 ① 주술관계 언어-군침이 돌다 ② 목술관계 언어-김을 매다 ③ 수식관계 언어-간발의 차, 깜빡 있다 2) 문법적 언어-결코 ~리 수 없다</p>
<p>임근석 (2002)</p>	<p>문장 안에서 일정한 통사적 구성을 구성하는 2개의 어휘소가 서로 공기성이 높고 분포의 제약이 있으며 의미적으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경우</p>	<p>1) 주술관계 언어-군침이 돌다 2) 목술관계 언어-갈피를 잡다 3) 부사어-서술어 관계 언어-감기에 걸리다 4) 수식관계 언어-각고의 노력, 갈기갈기 찢다</p>
<p>임근석 (2006)</p>	<p>어휘 요소 상호간 또는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 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언어행)가 되는 어휘 요소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어휘 요소나 문법 요소(언어변)를 제약적으로 선택한 구성이다.</p>	<p>1) 체언적 언어-자아 의식, 담배 한 개비, 가벼운 농담 2) 용언적 언어-눈이 부시다, 퐁퐁 열다</p>
<p>유승만 (2006)</p>	<p>두 어휘 간의 결합 제약이 있으면서 언어행의 의미는 투명한 반면 언어변의 의미는 투명/반투명/불투명한 경우</p>	<p>1)' 투명+Ø'-결정을 내리다 2)' 투명+불투명'-black coffee 3)' 투명+투명'-옷을 입다 4)' 투명+투명'-개가 짖다</p>
<p>『21세기 세종계획</p>	<p>둘 또는 그 이상의 어휘소들 사이에 전형적으로 결합되는 공기 관계가 성립</p>	<p>1) N_V-결론을 내리다 2) N_AJ-의견이 분분하다</p>

전자사전』	할 때 이들 어휘소의 연쇄를 가리킨다.	3) AV_V-빙글빙글 돌다 4) AJ_N-굳은 결의 5) N의_N-각고의 노력 6) AV_V[N_V]-주먹을 불끈 쥐다 7) V_N 동사-두근거리는 가슴 8) N_V[N_V]-협상이 난항을 겪다 9) N[N의_N]_V-혼신의 힘을 다하다 10) N_V[AV_V]-세력이 한풀 꺾이다 11) N_N-엽기적 살인 12) N[N의_N]_V-유종의 미를 거두다 13) AV[N_V]_V-상대리가 휘어지게 차리다
-------	-----------------------	--

이와 같이, 연어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학자마다 그 시점이 다르다. 연어의 '관용어적/관습적'(이희자, 1995; 이동혁, 1998) 특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제한적/제약적/분포 제약'(홍재성, 1995; 김진해, 2000; 임근석, 2002; 임근석, 2006) 및 '투명/반투명/불투명'(임근석, 2002; 유승만, 2006)이라는 특성에 중점을 두는 학자도 있다, 또한 연어 구성 성분 간의 관계에 대해 '공기 관계'(강현화, 1997; 김진해, 2000), '선택 관계'(이희자, 1995; 임홍빈, 2002; 임근석, 2006), '결합 관계'(홍재성, 1995; 이동혁, 1998; 문금현, 2002) 등의 용어가 보이듯이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자마다 연어 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어의 유형 분류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미역국을 먹다'와 같은 표현은 이희자(1995)와 강현화(1997)에서 똑같이 '숙어'로 보았지만 이희자(1995)에서는 숙어를 연어의 범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를 연어로 보지 않았고 강현화(1997)에서는 숙어를 연어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어로 보고 있다. 또 '개가 짖다'와 같은 표현은 이동혁(1998)에서 '기본의미+기본의미'의 구성으로 보아 연어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과 달리 강현화

(1997)에서는 이를 동사류의 선택 제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어로 보고 있다. 또 '속이 타다'의 경우 김진해(2000)에서는 준-제약적 연어로 보았지만, 임흥빈(2002)에서는 언어핵인 '속'의 의미는 기본 의미나 본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미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어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비록 한국어의 연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휘 차원에서의 긴밀한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의미 현상과 관련하여 정의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연어와 자유 결합 및 관용 표현과의 구별에 착안하여(구체적으로 4장에서 논의함)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의 언어 개념

언어는 일정한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2개의 어휘소가 긴밀하고 제한적인 결합 관계를 보이는 의미가 투명 혹은 반투명한 구성이다.

III. 중국어 '搭配'의 연구

2장에서는 서양 및 한국에서 이루어진 collocation 혹은 언어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중국어 대상의 언어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중국학계에서 collocation은 대체로 '搭配'(朱永生, 1996; 孫茂松, 외 1997; 濮建忠, 2003; 衛乃興, 2003 등) 또는 '詞語搭配'(文煉, 1982; 常敬宇, 1990; 林杏光, 1990, 1994; 王希杰, 1995; 李葆嘉, 2003; 衛乃興,

2002; 鄧耀臣 외, 2005; 全昌勤 외, 2005; 邢紅兵, 2013 등), '詞彙搭配'(徐立新, 2001; 黃強, 2002; 周榕 외, 2010) 등으로 번역된다. 이 중 '詞彙搭配'는 사용 빈도가 적고 '詞語搭配'는 최근에 대형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통계언어학적 차원에서 많이 쓰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搭配'라는 용어를 collocation에 대한 번역어로 쓰기로 한다.

중국에서의 搭配 개념에 관해 김태은 외(2015)가 중국학계의 搭配의 정의를 정리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 이를 참고하여 재정리하기로 한다.

〈표 2〉 중국어 搭配 개념

연구	개념 정의
范曉 (1986)	통사적으로 기능상의 결합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句法上合乎功能上的結合規則) 의미적으로 의미상에서의 연결 규칙을 갖추어야 한다. (語義上具備了義義上的關係規則) 화용론적으로 표현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語用上適應表達的需要)
常敬宇 (1990)	단어 사이의 결합 원칙은 주로 결합을 구성하는 단어가 의미소, 의미정보 측면에서 서로 조화되는지, 사리 논리에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다. (詞語之間的搭配原則, 主要看參加組合的詞語在義位, 義素的組合上是否相協調, 是否合乎事理邏輯)
文煉 (1982)	詞語搭配는 선택적인 표현의 일종으로 이러한 선택은 단어에 표현될 수도 있고 문법에도 표현될 수 있다. 詞語搭配는 어휘와 문법의 결합이다. (詞語搭配是選擇性的一種表現, 這種選擇性可以表現在詞彙上, 也可以表現在語法上, 詞語搭配是詞彙和語法的結合)
林杏光 (1994)	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가 되고 단어가 결합하여 구가 된다. (語素搭配成詞, 詞搭配成短語)
張志毅, 張慶雲 (2005)	義位搭配는 심층 현상, 詞語搭配는 표층 현상이다. 搭配는 주로 어휘나 義位의 고정성 또는 습관적인 결합을 말하며, 그 다음은 어휘나 義位의 비교적 자유로운 결합을 말한다. (義位搭配는深層現象, 詞語搭配는表層現象. 搭配主要是指詞語或義位的固定性或習慣性的組合體, 其次是指詞語或義位的相對自由的組合體)
王希杰 (1995)	언어의 기본 단위는 문장인데, 문장은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단어의 결합은 사실 단어 사이의 搭配 관계이다. (使用中的語言的基本單位是句子,

	而句子是由詞語組合而成的。詞語的組合其實正是詞語之間的搭配關係)
張壽康, 林杏光 (1996)	단어는 자력을 띤 물체처럼 실제적 사용에서 서로 끌어들이는 단어와搭配한다. (詞是一種磁性體, 在運用中, 只同相吸的詞語搭配) 搭配 관계는 첫째로 품사와 관련이 있으며 둘째로 단어 분류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搭配關係一與詞性有關, 二與詞的類別意義有關) 실사(實詞)의搭配는 자기장 구조와 비슷하다. (一個實詞的搭配就是一個磁體構造)
賈彥德 (1999)	문장 의미에 포함된 의미소의 결합은 문장 의미구조에서의 제약 외에 구체적인 각 의미소의 결합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다. (句義內義位的組合除了受句子語義結構的制約, 還有各具體的義位能否結合的問題) 의미소의搭配는 의미론적 개념이고 언어 사용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문장 안에서의 단어搭配 문제이다. (義位的搭配是從語義學講的, 人們通常的提法是句子裡詞語搭配的問題)
梅家駒 (1999)	이『現代漢語搭配詞典』이 다루는 것은 의미의 결합이며 단어의搭配는 결국 의미의 결합이다 (這本《現代漢語搭配詞典》表述的則是語義的組合, 詞語的搭配說到底正是語義的組合)
衛乃興 (2002)	詞語搭配는 텍스트 안에서 어떠한 비관용적 의미를 생성하는 동시에 일정한 문법적 형식으로 결합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단어 구성체로 해당 구성체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우연보다 큰 확률로 공기하므로 단어 간의 상호 출현이 예상될 수 있다. (詞語搭配是在文本中實現一定的非成語意義并以一定的語法形式因循組合使用的一個詞語序列, 構成該序列的詞語相互豫期, 以大于偶然的幾率共現.)

范曉(1986)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규칙을 바탕으로 詞語搭配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논술했다. 林杏光(1990, 1994, 1996)은 詞語搭配는 품사와 의미에 관련되어 있어 의미·문법적 범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詞語搭配를 관습적搭配와 논리적搭配로 유형 분류하였다. 한편 賈彥德(1999)은 비록 언어 사용자들이 단어들 간의 결합을搭配로 파악하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搭配의 가능 여부는 단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소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梅家駒(1999)는 사전 편찬의 차원에서 단어의搭配는 의미의 결합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들을 총괄적으로 보면 詞語搭配의 문법적, 의미적, 관습적 특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衛乃興

(2002)에서는 '비관용적 의미'와 일정한 문법적, 의미적 구성 조건에서 통계적 방법을 도입하여 '우연보다 큰 확률로 공기한다'와 같은 보다 상세한 양화된 기준을 세우고 詞語搭配를 정의하였다.

요컨대 지금까지 논의한 정의들을 통해 "'搭配'가 언어 단위의 여러 결합을 두루 가리키다가 차츰 일종의 의미적, 통사적 제약 등 선택적 제약에 의해 구성되는 단어 간 결합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김태은 외, 2015:310)을 알 수 있다.

IV. 한·중 언어 대조를 위한 언어 개념과 범주 한정

2장과 3장의 논의를 통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는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搭配의 의미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어에서 搭配는 한국어 언어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한국어 언어의 개념은 언어 구성 성분의 상호 관계, 언어와 자유 결합 및 관용 표현과의 구별에서 정의되는 것과 달리 중국어 搭配는 일정한 통사적, 의미적 제약에 의해 구성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 결합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 언어 개념이 collocation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되는 데 비해 중국어 搭配는 collocation과 개념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collocation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논한 것처럼 중국어 搭配가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 결합체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 쓰인다면 그 유형 분류 중에서 한국어 언어와 개념적으로 일치하는 유형은 없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언어 개념 구축과 함께 언어의 선정 기준과 범주를 명확

히 하는 것도 한·중 언어 대조를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중국어搭配上에 대한 유형 분류를 살펴본 후 언어의 선정 기준 및 범주 한정을 논하고자 한다.

1. 한국어 연어에 해당하는 중국어 搭配 유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어 搭配는 일정한 통사적, 의미적 제약에 의해 구성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 결합체를 가리킨다. 搭配의 유형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제시한 기준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른 분류도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된 중국 학계의 搭配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중국 학계의 搭配 유형

기존 연구	搭配의 유형	분류 기준
宋玉柱 (1990)	문법적 선택에 의한 搭配(語法選擇的搭配), 사회적 관습에 의한 搭配(約定俗成的搭配), 논리적 搭配(事理上的搭配)	搭配 해석의 가능성 ⁴⁾
劉叔新 (2005)	자유적 搭配(自由搭配), 특정적 搭配(特定搭配), 고정적 搭配(固定搭配)	변형의 유연성 ⁵⁾ , 어휘 선택 제약 ⁶⁾ , 의미 해석의 투명성 ⁷⁾
林杏光 (1994)	습관적인 搭配(習慣性搭配), 논리적인 搭配(事理性搭配)	搭配 해석의 가능성
衛乃興 (2002)	자유 결합(自由組合), 제한적 결합(有限組合), 성어(成語)	어휘 항목의 결합력(詞項的搭配力), 변형의 유연성(組合序列的結構可變性), 의미 해석의 투명성(意義的明哲性) ⁸⁾
張志毅 외 (2005)	중심적 搭配(中心類組合), 중간적 搭配(中間類組合), 변연적 搭配(邊緣類組合)	어휘 항목들의 공기 빈도 ⁹⁾

楊同用, 司敬新 (2007)	문법적 搭配(語法搭配), 논리적 搭配(邏輯搭配), 습관적 搭配(習慣搭配), 고빈도 搭配(高頻搭配)와 독특한 搭配(個性搭配), 고정적 搭配(固定搭配) 및 비관습적 搭配(超常搭配) ¹⁰⁾	
周新玲 (2007)	자유적 搭配(自由搭配), 반고정적 搭配(半固定搭配), 고정적 搭配(固定搭配), 이합사(離合詞)	의미 해석의 투명성, 변형의 유연성
錢旭菁 (2008)	자유적 搭配(自由組合), 제한적 搭配(有限組合), 고정적 搭配(凝固組合)	어휘 선택 제약
辛平 (2014)	자유적 搭配(自由搭配), 제한적 搭配(약-제한적 搭配, 강-제한적 搭配 포함)(限制性搭配, 包括弱限制搭配, 強限制搭配), 고정적 搭配(固定搭配)	공기 빈도, 어휘 선택 제약
常新茹 (2020)	자유적 搭配(自由搭配), 제한적 搭配(限制性搭配), 고정적 搭配(固定搭配)	搭配 강도 ¹¹⁾

- 4) 宋玉柱(1990)와 林杏光(1994)의 搭配 해석의 가능성 기준은 의미적으로 搭配가 해석될 수 있는가를 가리킨다. 문법적 선택에 의한 搭配(語法選擇的搭配)의 예로 大型汽車는 가능한 반면 汽車大型은 비문이다. 이는 大型이 區別詞로 명사 汽車와 결합할 때 大型汽車와 같은 '수식어+명사'의 결합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논리적 搭配(事理上的搭配)에 대해 '트랙터를 먹다(吃拖拉機)'를 예로 들었는데, 이는 '술어+목적어'의 구성으로 문법적으로 옳지만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비문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리적 搭配과 문법적 선택에 의한 搭配는 자유 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5) 劉叔新(1990/2005)에서 제시된 '변형의 유연성'은 주로 고정적 搭配(固定搭配) 및 특정적 搭配(特定搭配)를 구별할 때 제시되었다. 즉 고정적 搭配는 구성 성분이 고정적이고 긴밀하게 결합하여 이루어진 搭配이고 예를 들면 성어, 관용어, 헐후어(歇後語), 전문용어 등과 같은 구조 변형이 불가능한 搭配가 모두 고정적 搭配에 해당한다. 특정적 搭配는 고정적 搭配처럼 고정적이지 않고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어들이 습관적으로 공기하는 搭配이고 예를 들면 '理-發', '耍-把戲', '闖-禍', '灰色-作品' 등이 이러한 搭配에 해당한다.
- 6) 劉叔新(2005: 364)은 특정적 搭配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 단어가 제한적인 하나 혹은 몇 개의 단어와 결합할 때만 단어의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 의미를 제약하는 단어가 제약받는 단어와 결합하여 특정적 搭配를 이룬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휘 선택 제약'이 특정적 搭配를 판별하는 기준 중의 하나라고

위 <표 3>를 통해 중국 학계에서 搭配를 유형 분류할 때 취하는 기준이 한국 학계에서 언어를 개념하고 판별하는 기준과 상당히 비슷함을 알 수 있다.¹²⁾ 즉 '공기 빈도', '搭配 강도'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한 분류 방법을 빼고 나머지 '어휘 선택 제약', '의미 해석의 투명성' 등은 한국어 언어 판별에서 많이 따르는 기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7) '의미의 합성성' 기준은 비록 劉叔新(2005)에서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특정적 搭配 관련 예문에서 이것이 하나의 판별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闖는 禍와 결합하여 '경솔하거나 실수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다'의 뜻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猛冲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理는 頭發, 發과 결합해 '(머리를) 깎다'의 의미로 쓰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리하다'의 뜻은 아니라는 설명을 보면, 여기에 특정적 搭配의 구성 성분 중 하나를 기본 의미가 아닌 전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 합성성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衛乃興(2002)에 제시된 세 가지 기준은 정량 및 정성 분석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어휘 항목의 결합력(詞項的搭配力)은 "단어가 다른 단어와 공기하는 추세"를 가리키는데 이는 말뭉치를 통한 정량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변형의 유연성(組合序列的結構可變性)은 구성 성분의 이동(移動), 확충, 대체 등의 가능 여부를 가리키며, 의미 해석의 투명성(意義的明哲性)은 구성의 전체적 의미가 구성 성분 표면상의 의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가를 가리킨다.
- 9) 張志毅 외(2005:175)는 공기 빈도에 의해 關懷가 인간 관련 의미소(意味素, sememe) (領導, 上級, 長輩, 群衆, 下級, 晚輩, 學生, 我 등)와 결합하면 '中心類搭配'에 해당하고 일 관련 의미소(健康, 工作, 生活, 成長, 利益 등)와 결합하면 '中間類搭配'에 해당하며 사물 관련 의미소와 결합하면 '邊緣類組合'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 10) 楊同用, 司敬新(2007)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측면에서 搭配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 11) 공기 빈도를 중시하는 搭配 연구에서는 중심어가 결합어와 임의의 확률보다 높은 확률로 공기하는 어휘 항목의 선형적인 공기로 搭配를 보고 있다. 이러한 공기 확률을 측정하는 수단이 搭配 강도인데 MI값이 크면 클수록 搭配 강도도 크다.
- 12) 임유중(2006:157)은 지금까지 한국어 언어에 대한 판별 기준을 정리하였는데 어휘 선택 제약(분포의 개방성), 의미 해석의 투명성, 격들 변화(단위성), 구조 변형, 선택의 단일 방향성, 번역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어휘 선택 제약(분포의 개방성) 기준과 의미 해석의 투명성 기준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준이라고 하였다.

분류된 特定搭配/有限組合/受限搭配/限制性搭配 등이 한국어 연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宋玉柱(1990)에서는 사회적 관습에 의한 搭配(約定俗成的搭配)의 예로 '打酒'를 들었다. 打가 '사다'('現代漢語詞典』(제6판))의 의미로 사용될 때 打油, 打酒, 打車票처럼 아주 제한적인 단어와 결합이 가능하다. 劉叔新(1990/2005:364)에서는 特定搭配의 예로 '闖--出來/路子'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闖'은 猛冲, 勇猛向前이라는 기본 의미가 아닌 闖練라는 의미로 쓰여 '出來/路子'와 제한적으로 결합한다고 하였다. 錢旭菁(2008:64)은 有限組合의 예로 '下雨/雪/霜/霧'를 들면서 '下'는 雨/雪等降落的 의미로 쓰일 때 제한적으로 雨/雪/霜/霧와의 결합만 가능하고 또 이때 雨/雪/霜/霧가 다른 단어로 대체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辛平(2014)은 限制性搭配의 예로 '打--交道/官司'를 들었는데 '打'가 '다른 사람과 교섭하는 행위가 발생하다'(發生與人交涉的行爲)의 의미로 쓰일 때 '交道/官司'와의 결합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有限組合 및 限制性搭配라는 용어는 제한적 결합이라는 특성만 강조하고 의미 측면의 고려는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特定搭配를 한국어 연어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삼기로 한다.

2. 연어 혹은 特定搭配의 선정 기준

앞서 연어의 개념을 일정한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2개의 어휘소가 긴밀하고 제한적인 결합 관계를 보이는 의미가 투명 혹은 반투명한 구성으로 본다는 점을 언급한 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어의 선정 기준을 논하기로 한다. 사실 한·중 연어 대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의 개념 설정 그 자체보다는 그에 따른 선정 기준이 명확한가 하는 점이다. 한국어 연어가 중국어에서 어떻게 대응되는가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선행 연구에서 언어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을 살펴본 다음 본 연구에서의 언어 선정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한국어 연어의 선정 기준에 대해 임유중(2006)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2) 기존 논의에서 한국어 연어의 선정 기준

- ① 어휘 선택 제약(분포의 개방성) (홍재성, 1995; 임홍빈, 2002; 임근석, 2002; 이동혁, 2004)
- ② 의미 해석의 투명성 (홍재성, 1995; 임홍빈, 2002; 임근석, 2002; 이동혁, 1998; 이동혁, 2004)
- ③ 격틀 변화(단위성) (임홍빈, 2002; 임근석, 2002)
- ④ 구조 변형 (김진해 2000)
- ⑤ 선택의 단일 방향성 (김진해 2002)
- ⑥ 번역 (세종언어사전의 보조 기준)

임유중(2006)은 위와 같은 여섯 가지 기준 가운데 ①과 ②는 모든 경우에 언어의 선정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언어의 선정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전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나 또는 선정 기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서 어휘 선택 제약과 의미 해석의 투명성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할 것이다.

먼저 의미 해석의 투명성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혁(1998)에서는 언어의 구성 단위 중 적어도 하나의 단어가 기본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언어 A+B의 전체 의미는 비유적 의미가 첨가된 A+Bb라고 하였다. 임홍빈(2002)에서는 언어의 의미는 어느 정도 투명하며 합성적이나 관용 표현은 그렇지 않다고 보면서 언어와 관용 표현을 의미적 측면에서 구별하였다. 그리고 언어적 관점에서 언어핵이 기본적 의미를 가지고 독자적인 쓰임을 가지는 것이냐가 언어와 관용 표현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임근석(2002)에서는 어휘적 언어는 의미적으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하다고 하면서 자유 결합, 어휘적 언어, 관용 표현을 구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록 세부적으로 의견 차이를 보이지만 언어 구성 요소의 기본 의미와 비유적 의미 혹은 전의적 의미를 구별하는 시점에서 언어를 선정하는 데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의미 해석의 투명성에 비해 어휘 선택 제약(분포의 개방성)은 다소 모호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어휘 선택 제약은 주로 자유 결합과 언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지적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임홍빈(2002)을 들 수 있다. 임홍빈(2002)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언어와 자유 결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ㄱ. 결정을 내리다, 판단을 내리다, 명령을 내리다
 ㄴ. *결정을 하강시키다/위에서 아래에 있게 하다
 ㄷ. *결정을 올리다, *판단을 올리다
 ㄹ. 결정을 짓다, *판정을 짓다, *판단을 짓다, *명령을 짓다
- (4) ㄱ. 짐을 내리다, 깃발을 내리다, 팔을 내리다
 ㄴ. 짐을 하강시키다/위에서 아래에 있게 하다

ㄷ. 짐을 올리다

임흥빈(2002)에서는 (3ㄴ)의 경우를 '어휘적 유사어 대치', (3ㄷ)의 경우를 '어휘적 반의어 대치', 그리고 (3ㄹ)의 경우를 '연어적 유사어 대치'라고 명명하고 있다. '결정을 내리다'는 (3ㄴ) 및 (3ㄷ)에서 보듯이 '내리다'를 대신하여 유의어 '하강시키다'나 반의어 '올리다'로 바꿀 수 없어서 어휘적 유사어 대치 및 반의어 대치가 불가능하므로 연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4)의 '짐을 내리다, 깃발을 내리다, 팔이 내리다'는 '하강시키다'나 '올리다'로 바꿀 수 있고 어휘적 유사어, 반의어 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 결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임흥빈(2002)에서 제시된 어휘 선택 제약 기준에 대해서는 임유중(2006)에서 구체적으로 논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연어적 유사어 대치는 연어 선정과 무관한 문제로 각각의 연어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것인데 우연히 비슷한 의미를 드러내게 된 것으로 보았으며, 어휘적 반의어 대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어 관별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연어변에 대한 어휘적 유사어 대치의 경우 실제로 어휘적 유사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그 유사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임유중(2006)은 어휘적 유사어의 범위에 동의어, 유의어가 포함되며 '이별을 고하다/알리다/고지하다/이르다/통보하다'처럼 전형적인 동의어나 유의어를 어휘적 유사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지만 의미 파생이나 다의성으로 인하여 다소 거리가 먼 유의어, 동의어 등이 상정될 수 있어서 어디까지를 동의나 유의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어휘 의

미장이나 의미 범주의 차원에서 '피아노를 치다', '피리를 불다', '바이올린을 켜다', '가야금을 뜯다'와 같은 상정이 가능한 관련 어휘들을 어휘적 유사어의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휘 의미장이나 의미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임홍빈(2002)에서 제시된 어휘적 유사어 대치는 본질적으로 다의성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홍빈(2002)은 '결정을 내리다'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어변 '내리다'의 의미에 입각하여 이를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하강시키다' 혹은 '위에서 아래에 있게 하다'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대체가 불가능하며 '결정을 내리다'는 연어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은 2가지 기준은 서로 상호관련성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어의 대치나 어휘적 유사어 대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정 성분이 원래의 의미와는 다소 떨어진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임유중, 2006:169). 그뿐만 아니라 유사어 대치에서 '내리다'의 여러 의미 가운데 '하강시키다' 또는 '위에서 아래에 있게 하다'라는 비전의적이고 기본 의미가 참조되었다는 점에서도 어휘 선택 제약에서 실질적으로 의미의 투명성 기준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미 해석의 투명성 기준에 어느 정도 어휘 선택 제약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의 의미 혹은 비유적 의미는 기본 의미보다 새로 나타난 의미로서 다른 단어와의 결합에서 자유롭지 않게 항상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어 特定搭配의 선정 기준은 1절에서 논하였듯이 어휘 선택 제약 및 의미 해석 투명성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국어 연어의 선정 기준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구체적인 측면에서 차이

를 보인다.

먼저 의미 투명성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衛乃興(2002)에서는 구 구성의 전체적 의미를 구성 성분 표면상의 의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가를 언어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하였다. 劉叔新(2005)에서도 '這一下闖了大禍'에서의 '闖'은 '猛沖'의 뜻이 아닌 '由于大意, 魯莽而引起'의 뜻으로 쓰인다고 하면서 의미 투명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의미 투명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다음으로 어휘 선택 제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언, 특히 동사의 의미를 둘러싼 어휘 선택 제약을 논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어 언어 연구와 다르다. 예를 들면 錢旭菁(2008:64)에서는 '打③毆打, 攻打'로 쓰이는 경우 40여 개 명사와의 결합이 가능한 것과 달리 '打①舀取'로 쓰이는 경우 '水'와 '粥'과의 결합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전자를 자유 결합으로, 후자를 有限組合으로 보았다. 또한 辛平(2014)에서는 동사와 결합하는 목적어 명사의 수량, 명사의 분포 상황, 명사의 유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서 많이 쓰이는 'V+N搭配'를 자유 결합, 제한적 결합, 그리고 고정적 결합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打'가 '毆打, 攻打'(打孩子), '做某种游戲'(打麻將), '塗抹; 畫; 印'(打肥皂), '買'(打醬油), '制造, 打家具'(打床) 등의 의미로 쓰일 때 '打+명사'는 자유 결합이고 '發生与人交涉的行爲'(打交道), '捆'(打背包), '表示身体上的某些動作'(打噴嚏), '揭; 鑿開'(打井) 등의 의미로 쓰일 때 '打+명사'는 제한적 결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 언어와 중국어 特定搭配의 선정 기준에 관해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의를 받아들여 일차적으로 의미 해석의 투명성을 언어와 자유 결합, 관용 표현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

기로 한다. "단어 의미는 단어들 간의 결합에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의 결합력 및 결합 범위는 단어 의미의 영향을 받고 의미가 다르면 그 결합 방식, 범위 등도 다르다"(詞義是影響詞的搭配諸因素中最重要, 最直接, 最普遍, 最活躍的一個因素. 詞的搭配能力和範圍受制于詞的意義, 不同詞義往往有不同的搭配手段, 搭配形式和搭配範圍)(照亮, 2011:130). 그리고 衛乃興(2011:31)에 의하면, "'의미 해석의 투명성'은 Phraseology에서 단어 결합의 성격을 판별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면서 간편한 기준이다. 보통 일반적搭配(一般搭配)의 경우 의미가 투명하고, 제한적搭配(有限搭配)와 수사적성어(修辭性成語)의 경우 의미가 반투명하며 성어의 경우 의미가 불투명하다"(透明性應是經典短語學判別短語類別最直接和便捷的標準. 一般搭配都是語義透明的; 有限搭配和修辭性成語的語義透明程度都低於一般搭配, 可視為半透明的詞組; 而位於連續統最右端的純成語, 則是完全不透明). 이러한 측면에서 연어를 판별하는 데 '의미 해석의 투명성'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 해석의 투명성 기준은 한국어 연어나 중국어 特定搭配를 선정하는 데 널리 적용되고 있고, 앞에서 논하였듯이 어휘 선택 제약도 본질적으로 의미 투명성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2개의 어휘소로 구성되고 하나의 의미가 투명하며 다른 하나의 의미가 불투명한 경우를 연어 혹은 特定搭配로 본다. 여기서 투명, 불투명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임홍빈(2002)의 관점을 따르기로 한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논한 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어핵과 연어변을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연어나 중국어 特定搭配는 선택의 방향성에 대해 아직

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김진해(2000)와 임홍빈(2002)을 들 수 있다. 김진해(2000:21-26)는 '눈을 감다', '개가 짖다', '코를 골다'에서 '감다, 짖다, 골다'가 '눈, 개, 코'를 선택한 반면 '육을 먹다', '목이 잠기다', '정신이 팔리다'에서 '육, 목, 정신'이 '먹다, 잠기다, 팔리다'를 선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임홍빈(2002)은 '명사+동사' 구성에 대해 언어학인 명사가 언어변인 동사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중국어 特定搭配의 경우도 비슷하게 선택의 방향이 복잡한데 예를 들어 '打招呼, 打官司, 打招呼'의 경우 '打'가 명사 '招呼, 官司, 照面'을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달리 '打耳光'의 경우 '耳光'이 '打', '扇', '抽', '給'와 같은 몇 개밖에 안 되는 단어와 제한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명사 '耳光'이 '打'을 선택한다는 것이다(錢旭菁, 2008:68).

둘째, "실제로 무엇이 node(언어핵?)이고 무엇이 collocate(언어변?)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분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김진해, 2007:242). 김진해(2007: 242-246)는 먼저 임홍빈(2002), 임근석(2006), 유승만(2006) 등에서 '체언+용언'형 언어에서 언어핵은 항상 체언, '부사+용언'형에서 언어핵은 용언, 그리고 '수식어+체언'형 언어에서는 체언, '체언-의 체언'형 언어에서는 선행 체언이 언어핵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통계적 방법으로 "어떤 구성에서 무엇을 대상어(또는 언어핵)로 삼느냐, 무엇이 언어(또는 언어변)이나 하는 것은 구성 유형에 따라 무조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언어핵을 정해 통계적 방법으로 언어 목록을 추출하는 것이 언어 연구의 목표가 아니라 언어가 구성되는 방식, 언어가 어떻게 산출되고 이해되는가, 언어의 의미는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는가 하는 의미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진정한 목표여야 한다

는 주장도 밝혔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우선 연어와 자유 결합, 관용 표현을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 (5) ㄱ. 밥을 먹다, 과일을 먹다, 약을 먹다
 - ㄴ. 욕을 먹다, 나이를 먹다, 우승을 먹다
 - ㄷ. 속이 타다, 속이 겹다, 마음을 먹다
 - ㄹ. 콩밥을 먹다, 미역국을 먹다, 물을 먹다

- (6) ㄱ. 吃水果(과일을 먹다), 吃点心(과자를 먹다), 吃牛肉(쇠고기를 먹다)
 - ㄴ. 吃亏(손해를 보다), 吃功夫(힘겹다), 吃官司(소송 당하다)
 - ㄷ. 吃回頭草(일단 그만 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다), 吃大鍋飯(똑같이 대우하다), 吃老本(밑천을 까먹다)
 - ㄹ. 吃錯藥(언행이 그다지 정상적이지 않거나 이치에 어긋난다), 吃豆腐(여자를 희롱하다), 吃獨食(이익을 독점하다)

위 (5ㄱ)의 경우 체언 '밥, 과일, 약'과 용언 '먹다'의 의미가 투명하기 때문에 자유 결합이다. (5ㄴ)의 경우 체언 '욕, 나이, 우승'이 기본 의미로 쓰여 의미가 투명한 반면 용언 '먹다'는 '욕을 먹다'에서 '욕, 핀잔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의 의미로, '나이를 먹다'에서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라는 의미로, '우승을 먹다'에서 '어떤 등급을 차지하거나 점수를 따다'의 의미로 쓰여 의미가 불투명하다. (5ㄷ)의 '속이 타다, 속이 겹다'에서 '속'은 '품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의 의미로, '마음을 먹다'에서 '마음'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이라는 전의 의미로 쓰여 불투명하다. 용언의 경우도 비슷한데 '타다, 겹다, 먹다'는 모두 비유적인 의미로 쓰여 의미가 불투명하다. (5ㄹ)은 직설적인 의미로 쓰이면 자유 결합, 비유적 의미로 쓰이면 관용 표현이

되는 예이다.

중국어의 경우도 비슷한데 (6ㄱ)에서는 '水果, 点心, 牛肉'와 '吃'의 의미가 모두 투명하기 때문에 자유 결합이다. (6ㄴ)의 경우 체언 '亏, 功夫, 官司'가 기본 의미로 쓰여 의미가 투명한 반면 '吃'는 '吃亏'에서 '손해를 보거나 어떤 방면에서 상황이 불리하다'의 의미로, '吃功夫'에서 '정력을 소모하다'의 뜻으로, '吃官司'에서 '소송 당하다'의 의미로 쓰여 의미가 불투명하다. (6ㄷ)은 '吃'와 '回頭草, 大鍋飯, 老本' 모두가 의미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용 표현이고 (6ㄹ)은 항상 비유적인 의미로 쓰여 관용 표현이다.

한편 한국어나 중국어에서 구성을 이루는 두 요소가 모두 의미가 투명하지만 어휘 선택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 (7) ㄱ. 바지를 입다
 - ㄴ. 신발을 신다
 - ㄷ. 장갑을 끼다
 - ㄹ. 모자를 쓰다
 - ㅁ. 시계를 차다
 - ㅂ. 귀고리를 달다

- (8) ㄱ. 彈鋼琴(피아노를 치다)
 - ㄴ. 拉小提琴(바이올린을 켜다)
 - ㄷ. 吹笛子(피리를 불다)
 - ㄹ. 敲架子鼓(드럼을 치다)
 - ㅁ. 撥豎琴(하프를 켜다)

위와 같은 경우를 언어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판단이 쉽지 않다. 형태적으로 언어와 같이 어휘 선택 제약을 받지만 의미적으

로 자유 결합처럼 의미가 투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중 언어 대조에서는 잠정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도 언어로 보기로 한다. 한·중 언어 대조의 목표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중 언어 대조의 목표는 언어 교육이나 기계 번역, 사전 편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선명하지 않은 언어의 정체를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살핀다는 것도 있다. 이런 점에서 그 경계 선상에 있는 목록들을 포함하여 한국어 언어와 중국어의 대응 유형을 분석하면 언어의 개념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구성도 언어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언어를 선정하는 2차 기준으로 어휘 선택 제약을 들 수 있다. 다만 1차 기준, 즉 의미 해석의 투명성 기준을 보완할 뿐 언어 혹은 特定搭配를 판별하는 주된 기능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언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한국어 언어와 중국어 特定搭配의 범위

구분	자유 결합	언어/特定搭配			관용 표현	
		투명+투명	투명+불투명	불투명+투명	불투명+불투명	불투명
의미 특성	투명+투명	투명+투명	투명+불투명	불투명+투명	불투명+불투명	불투명
결합 제약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심함	심함
한국어	밥을 먹다	피리를 불다	육을 먹다	손이 부족하다	속이 타다	미역국을 먹다
중국어	吃飯 (밥을 먹다)	吹笛子 (피리를 불다)	*	下決心 (결심을 내리다)	戴高帽 (비행기를 태우다)	打問號 (물음표를 찍다) ¹³⁾

V. 나오며

본고에서 collocation 연구의 기원, 한국어 연어에 대한 개념적 연구, 그리고 중국어搭配上 관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한·중 언어 대조를 위한 연어의 개념 구축을 시도하였다. 한국어의 연어는 영어 collocation으로 대체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搭配는 collocation보다 개념적으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collocation으로 대체될 수 없다. 즉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搭配는 개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搭配的 유형을 분석한 결과 特定搭配/有限組合/受限搭配/半固定搭配/限制性搭配 등이 한국어 연어에 상응하는 용어로 볼 수 있고 이 중 본고에서 주장하는 언어 판별 기준을 고려하면 特定搭配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搭配를 통일된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일차적으로 의미 해석의 투명성 기준, 이차적으로 어휘 선택 제약 기준을 권하였다. 그리고 의미의 투명성을 판정하는 데 언어핵과 언어변을 구분하지 않고 구성 성분이 하나가 투명하고 다른 하나가 불투명하면 언어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순수언어학적 측면에서 한·중 언어 개념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결합 빈도를 중시한 통계적 방법으로 연어를 정의하고 추출하는 바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는 전혀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국어搭配上 관한 유형 분류, 그리

13) ‘打問號’는 ‘물음표를 찍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의문을 품고 있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고 한국어 연어와 중국어搭配上 판별하는 기준이 향후 한·중 연어 대조 연구에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현화, 「[체언+용언]폴의 언어 구성에 대한 연구」, 이상섭 외(1998), pp.191-224.
- 김진해, 「국어 언어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_____, 「언어관계의 제자리 찾기」, 『한국어학』 제37호, 한국어학회, 2007, pp.229-260.
- 김태은, 신수영, 「언어(collocation)와 중국어 결합 관계(搭配)에 대한 개념적 고찰」, 『中國語文學誌』제50집, 중국어문학회, 2015, pp.287-319.
- 문금현,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언어 학습 방안」, 『국어 교육』 제109호, 한국어교육학회, 2002, pp.217-247.
- 박성숙, 「한불 사전에서의 언어 처리」, 『불어불문학회연구』 제34집, 한국불어불문학회, 1997, pp. 571-587.
- 박진희, 「언어 제약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3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pp.83-105.
- 송정근, 「명사와 동사 결합 구성의 유형론과 기계번역」,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유승만, 「한국어 - 러시아어 언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노어노문학』 제3집, 한국노어노문학회, 2006, pp.17-42.
- 이동혁, 「국어의 언어적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_____, 「국어 언어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희자,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大東文化研究』 제30호, 1995, pp.411-444.
- 임근석, 「현대국어의 어휘적 언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_____, 「한국어 언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임유중, 「언어의 개념과 범주 한정 의 제 문제」, 『국제어문』 제36집, 국제어문학회, 2006, pp.145-181.
- 임홍빈, 「한국어 언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국어학』 제39집, 국어학회, 2002, pp.279-311.
- 최경숙, 「언어 구성의 기능동사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순희, 「한 - 중 언어 비교 연구 - 한국어 언어의 중국어 대응을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홍재성, 「어휘 함수에 의한 한국어 의미 기술과 사전 편찬」, 『제2회 한국학 국제학술회

- 의 논문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pp.425-447.
-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국립국어원, 2006.
- Barfield, A. and Gyllstad, H., *Researching Collocations in Another Language : Multiple Interpretations*,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09.
- Cowie, Anthony P. *Phraseology*, In Ronald E. Asher (ed.),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1994, pp.3168 - 3171.
- Firth, J. R. *A synopsis of linguistic theory 1930-1955*, In *Studies in Linguistic Analysis*, pp.1-32, reprinted in F. Palmer (ed), *Selected Papers of J. R. Firth 1952-59*, pp.168-205, London : Longmans, 1957.
- Howarth, P. *Phraseology in English Academic Writing : Some Implications for Language Learning and Dictionary Making*. Tubingen : Max Niemeyer Verlag, 1996.
- Sinclair, J. *Corpus, Concordance and Colloca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常敬宇, 「語義在詞語搭配中的作用 - 一兼談詞語搭配中的語義關係」, 『漢語學習』第6期, 1990, pp.4-8.
- 常新茹, 「搭配强度与結構類型對中高級泰國漢語學習者限制性搭配加工的影響」, 『語言教學与研究』第3期, 2020, pp.22-32.
- 鄧耀臣, 「詞語搭配研究中的統計方法」, 『大連海事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4期, 2003, pp.74-77.
- 鄧耀臣 王同順, 「詞語搭配抽取的統計方法及計算机實現」, 『外語電化教學』第5期, 2005, pp.25-28.
- 范 曉, 「談談詞語的搭配」, 『中國語文天地』, 第1期, 1986.
- 黃 强, 「高年級英語學生詞匯搭配習得的實証性研究」,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第4期, 2002, pp.73-76.
- 賈彥德, 『漢語語義學』,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1999.
- 林杏光, 「詞語搭配的性質与研究」, 『漢語學習』第1期, 1990, pp.7-13.
- , 「論詞語搭配及其研究」, 『語言教學与研究』第4期, 1994, pp.18-25.
- 梅家駒, 『現代漢語搭配詞典』, 上海 : 漢語大詞典出版社, 1999.
- 劉叔新, 『漢語描寫詞匯學重排本』, 北京 : 商務印書館, 2005.
- 濮建忠, 「英語詞匯教學中的類聯接、搭配及詞塊」, 『外語教學与研究』第6期 2003, pp.438-445+481.
- 錢旭菁, 「有限組合選擇限制的方向性和制約因素 -- 兼論外向型搭配詞典的體例設

- 計」, 『世界漢語教學』第4期, 2008, pp.63-74+3.
- 全昌勤·劉輝·何婷婷, 「基于統計模型的詞語搭配自動獲取方法的分析与比較」, 『計算機應用研究』第9期, 2005, pp.55-57.
- 孫茂松·黃昌宁·孫捷, 「漢語搭配定量分析初探」, 『中國語文』第1期, 1997, pp.29-38.
- 王希杰, 「論詞語搭配的規則和偏离」, 『山東師大學報』第1期, 1995, pp.100-104.
- 衛乃興, 「基于語料庫和語料庫驅動的詞語搭配研究」, 『當代語言學』第2期, 2002, pp.101-114+157.
- _____, 『詞語搭配的界定与研究体系』, 上海: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02.
- _____, 「搭配研究50年: 概念的演變与方法的發展」,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第2期, 2003, pp.11-15.
- _____, 「再探經典短語學的要旨和方法: 模型、概念与問題」, 『外語与外語教學』, 第3期, 2011, pp.29-34.
- 文 煉, 「漫談語言單位的歸類問題」, 『語文學習』第7期, 1982, pp.58-59+48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六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 邢紅兵, 「詞語搭配知識与二語詞匯習得研究」, 『語言文字應用』第4期, 2013, pp.117-126.
- 辛 平, 『面向對外漢語教學的常用動詞V+N搭配研究』,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2014.
- 徐立新, 「語篇中的詞匯搭配」, 『外語与外語教學』第2期, 2001, pp.29-31+38.
- 許余龍, 『對比語言學』,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10.
- 楊同用·司敬新, 「搭配類型与對外漢語實詞搭配詞典的編纂」, 『辭書研究』第2期, 2007, pp.62-70.
- 張壽康·林杏光, 『現代漢語實詞搭配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1996.
- 張志毅·張慶云, 『詞匯語義學』, 北京: 商務印書館, 2005.
- 照 亮, 「《俄漢搭配詞典》讀后」, 『辭書研究』第5期, 2011, pp.129-136.
- 周榕·呂麗珊, 「輸入增額与任務投入量對英語詞匯搭配習得影響的實証研究」, 『現代外語』, 第1期, 2010, pp.81-88+110.
- 周新玲, 「詞語搭配研究與對外漢語教學」, 上海外國語大學博士論文, 2007.
- 朱永生, 「搭配的語義基础和搭配研究的實際意義」, 『外國語』第1期, 1996, pp.14-18.

Abstract

The Concept Construction and Scope Definition of Collocation with the Aim to Compare Korean and Chinese Collocations

Su, Xiao-xia · Cui, Shun-j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collocation for the Korean-Chinese collocation contrast by discussing Korean "collocation" and Chinese "搭配". Compared to recent active studies on Korean-Chinese collocation, there is a lack of theoretical discussion on Chinese concepts corresponding to Korean collocation.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se two concepts do not match, looking at discussions on Korean collocation and Chinese 搭配. After analyzing the type of 搭配, "特定搭配/有限組合/受限搭配/限制性搭配" can be considered as a corresponding concept to Korean collocation, among which "特定搭配" is the most appropriate one considering the collocation discrimination criteria proposed in this paper. In addition, in terms of the criteria for collocation or 特定搭配, this study proposed "meaning interpretation of transparency" as the primary criterion and "lexical selection restrictions" as the secondary standard. This study also specified their category.

Key Words : collocation contrast, conceptual building, 特定搭配, scope definition, transparency of meaning

주저자

소효하

소속 : 강소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전자우편: 22009818@qq.com

교신저자

최순희

소속 : 북경언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전자우편 : cuishunji@bncu.edu.cn

이 논문은 2021년 8월 22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9월 25일 게재 확정됨.